

20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대학교	성명	PHU THI QUYNH <당티꾸옌>	학년	4	생년월일	1992 년 03 월 24 일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가	죽	에	대	해	이	야	기	할	때	마	다	누	구	나
처	음	으	로	마	음	속	에	서	부	터	며	모	르	는
사	랑	과	고	마	음	이	다	.	두	음	자	뿐	인	가
이	라	는	단	어	자	체	에	사	랑	과	고	마	음	이
감	겨	있	기	때	문	이	라	고	생	각	한	다	.	나
나	만	의	가	죽	이	있	다	.	지	치	고	할	들	때
나	를	감	싸	주	고	기	뵈	내	결	에	서	웃	어	
주	는	그	런	가	죽	이	있	다	는	말	이	다	.	뵈
만	아	니	라	나	에	게	많	은	것	을	가	르	쳐	
주	는	고	말	고	자	랑	스	러	운	가	죽	이	다	.
나	는	1	남	1	년	가	죽	에	세	장	너	로	태	어
다	.	우	리	아	버	지	가	내	가	9	살	이	던	때
암	병	으	로	돌	아	가	섰	다	.	그	때	는	가	죽
있	다	는	고	통	을	못	는	꺼	지	던	너	무	어	런
나	이	였	다	.	하	지	만	그	때	다	른	친	구	애
이	자	기	의	아	빠	를	부	르	는	소	리	를	들	었
을	때	마	다	,	학	고	가	끝	나	고	아	빠	들	이
아	이	들	을	마	중	하	려	학	교	앞	에	서	기	나
있	는	모	습	을	봤	을	때	마	다	내	가	슬	이	
천	령	이	던	것	을	는	겉	수	있	었	다	.	학	교
에	서	친	구	들	이	나	를	보	고	아	빠	가	없	는
	아	이	라	고	놀	렸	을	때	물	기	만	했	던	나
의	,	모	습	이	여	전	히	성	명	하	다	.	나	는
리		아	버	지	가	미	위	서	울	었	던	게	아	니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대학교	성명	DINH THE QUYNH (딘티쾰엌)	학년	4	생년월일	1992 년 03 월 27 일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보	고	싶	고	그	리	위	서	물	었	던	것	이	다	.
그	때	내	가	보	고	삼	은	사	랑	을		볼	수	
없	는	것	이	얼	마	나	아	픈	것	인	지	알	게	
되	었	다	.											
우	리	어	머	니	게	서	나	를	키	우	시	기	에	너
나	도	고	생	하	셨	다	.	어	머	니	게	서	는	선
이	신	데	이	른	아	침	부	터	출	근	하	시	고	해
것	때	까	지	집	에	와	서	또	야	식	을			만
들	어	파	셨	다	.	어	머	니	게	서	부	엿	에	제
존	이	반	개	지	면	서	밖	은	어	머	니	의	웃	은
당	은	조	곶	어	있	었	던	어	머	니	의	뒤	모	습
이	얼	마	나	조	라	했	을	지	몰	랐	다	.	옆	에
선	거	지	를	하	는	내	가	어	머	니	의	뒀	모	습
을	쳐	다	볼	수	만	있	었	다	.	야	위	신	어	
머	니	의	얼	문	과	눈	빛	을		그	때	차	마	는
또	고	못	봤	을	정	도	로	마	을	이	너	무		아
팠	다	.	그	런	데		그	때	와	다	어	머	니	게
	마	을		아	실	것	같	아	항	상	내	영	딩	
이	를	도	각	도	다	하	시	고	‘	엄	마	가	편	찮
나	중	에	우	리	꾸	엔	이	잘	커	서	엄	마	에	게
	다	시	잘	해	주	면	되	잖	니	‘	과	고	말	을
하	신	곤	한	다	.	가	끔	씩	어	머	니	의	눈	고
에		을	생	어	는	눈	물	도	보	였	다	.	‘	우
예	미	가	너	무	고	생	한	다	.	‘	이	러	시	면
을		보	고	공	부	하	려	가	라	고	하	시	고	흔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대학교	성명	DINH THI QUYNH	학년	4	생년월일	1992 년 03 월 29 일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---

서

을

카

셨

다

.

나

는

집

에

서

공

부

하

고

동

생

에

게

돌

아

주

면

서

밤

늦

게

까

지

어

머

니

를

기

다

렸

다

.

어

머

니

께

서

집

에

오

셔

서

손

과

발

만

씻

으

시

고

내

속

제

를

봐

주

셨

다

.

2

나

을

에

동

생

이

잔

자

고

있

는

지

보

셨

다

.

어

머

니

께

서

어

깁

었

이

항

상

그

려

셨

다

.

어

머

니

께

서

정

말

엄

마

이

자

아

빠

이

다

.

어

머

니

덕

분

에

내

가

사

랑

은

무

엇

인

지

알

게

되

었

다

.

사

랑

은

서

로

에

게

잘

해

주

는

것

분

아

니

라

서

로

위

해

희

생

하

는

것

이

다

.

우

리

가

쪽

에

는

아

버

지

께

서

안

게

시

지

만

나

는

항

상

사

랑

과

관

심

아

래

로

자

라

왔

다

.

우

리

어

머

니

께

서

나

에

게

관

심

을

갖

다

주

시

는

방

법

이

남

다

은

어

린

시

절

부

터

내

가

넘

어

졌

을

때

어

머

니

게

서

얼

으

키

신

적

이

한

번

도

있

었

다

.

주

저

하

지

말

고

스

스

로

어

어

나

라

고

하

신

어

머

니

께

서

나

에

게

자

립

심

을

키

워

주

셨

다

.

소

심

한

그

나

이

었

을

대

나

도

슬

직

히

머

머

니

를

미

워

한

적

이

있

었

다

.

그

런

데

성

장

하

다

보

니

까

어

머

니

께

서

그

결

게

키

워

주

셔

서

정

말

같

사

하

다

.

어

면

,

얼

을

한

다

고

결

심

내

면

끝

까

지

소

신

갖

고

이

루

어

내

아

한

다

.

그

리

고

세

상

에

제2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대학교	성명	ĐINH THỊ QUỲEN (당티쾰옌)	학년	4	생년월일	1992년 03월 24일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산면 우뚝 서 다는 강 한 의 지 와 남 에 게
 의 존 하 지 았 고 하 겠 다 는 일 에 마 음 을
 먹 고 실패 의 두려움 에 무 릎 쓰 면 안 된
 것 을 어 버 니 께 서 가 르 쳐 주 셧 다 . 그 러
 셧 을 때 마 다 어 버 니 께 서 정 말 아 버 지 와
 닮 으 셧 다 . 강 한 가 훈 치 렬 들 리 지 만 속
 에 서 어 버 니 의 사 랑 이 넘 진 다 . 어 버 니
 와 같 은 어 버 니 의 딸 로 테 어 나 서 강 상
 고 맵 게 생 각 한 다 . 내 가 단 한 번 이 라 도
 아 버 지 가 없 어 서 부 족 하 거 나 운 이 안
 종 다 는 생 각 에 등 적 이 없 다 . 그 리 고
 나 를 위 해 고 생 하 신 어 버 니 의 모 습 은
 보 고 내 가 꼭 공 부 를 열 심 히 하 고 자
 랑 스 러 운 딸 이 되 겠 다 고 마 음 을 먹 었 다
 . 열 심 히 공 부 하 고 어 느 가 을 날 에 는
 내 가 하 노 이 대 학 교 에 합 격 하 게 되 었 다
 는 소 식 을 반 았 다 . 정 말 그 때 는 나 에
 게 더 기 뵈 일 이 아 닌 수 가 없 었 다 .
 그 런 데 합 격 했 다 는 말 을 듣 게 된 것 보
 다 는 어 버 니 의 환 한 웃 음 이 나 들 행 복
 하 게 만 들 었 던 것 이 다 . 내 가 어 버 니 를
 꼭 안 아 주 면 서 해 냈 다 고 말 했 더 니 어 머
 니 께 서 의 의 도 는 물 이 나 셧 다 . 아 버 지
 의 , 장 례 식 그 뒤 문 밖 에 는 어 버 니 께 서
 유 시 는 것 을 한 번 도 못 봤 는 데 이 번

